

제419회 국회  
(임시회)

#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석기 의사율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지난 12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님 등 12인으로부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요구가 있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는 개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일단 3분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윤후덕 위원 그것도 시간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 김영배 위원 횟수는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기 예, 3분씩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진행되는 과정에라도 부처는 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배 간사님하고 김건 간사님이 진지하게 논의를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 이재정 위원 아니, 나라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외교부가 지금 한가하게 청사에 있을 때입니까? 국회에 나와 설명이라도 해야지요. 변명이라도 해야지요. 그럴 기회를 주는 것도 여당 위원장님, 여당 위원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이것 의사진행발언 순서 기다려서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이크 없는 채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한마디면 출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만 한마디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석기 무슨 말씀입니까?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이 부처 출석하라고 하시면 출석한답니다.

○위원장 김석기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셔서 출석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기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되면 모든 것을……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 아닙니다.

○위원장 김석기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되도록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지금 국가가 원만하지 않은데 우리 위원회의 그런 방식의 관행을 우선 시하는 것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 쥔 채로 부처 출석하라고 한마디면 장관 나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이재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었습니다.

○이재정 위원 아니요,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지금 우리 간사님부터 하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그다음에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못 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사 간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정말 염중한 상황인데,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입건이 되고 출국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외교활동 자체가 지금, 국가원수의 외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지금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질서 있는 조기 사퇴인지 퇴진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질서한 시간 끌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일부, 그동안 통일부장관 언행을 봤을 때 어제 국방위에서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상당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행동을 꾸준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동안 북쪽으로 보내는 빠라 풍선, 야당 위원들이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대면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피했습니다. 회피한 그 이유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들, 사실관계들 이제 다 밝혀야 할 때입니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부처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또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이재정 위원 (손을 두드림)

○김영배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석기 이재정 위원님, 그러면 두 번 하시는 건데 두 번째 하시겠습니까?

○이재정 위원 저 안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이재정 위원 저는 간사님부터 먼저 발언하실 줄 알고……

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비상한 때입니다. 국민들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위원장석에서 지금 그 마이크 쥐고 계신 채로 ‘장관 나와라, 통일부장관 나와라’, 부처에 ‘모두 나와라’ 하시면 나옵니다. 위원장님의 책임을 방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안 나오신 위원님들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관행 때문에, 잡혀진 회의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힌 회의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다? 부끄러워서 안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외교계에서, 여기 계신 저희 외통위원분들 다 대사관하고 외국의 의원들하고 연락들 합니다. 상황들을 물어 옵니다.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 야당이지만 정말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민주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역설하느라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당 외통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방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느냐 아니냐 이 법률적 문제도 같이하고 있고 정말 외교부의 직원분들도 그런 상황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태열 장관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런 역설이라도 이 자리를 열어서 한번 들어 보시지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어렵지 않습니다. 간사님께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마이크 쥐진 그대로 ‘장관, 나와라’ 말씀 주십시오.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방기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이재정 위원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 다 듣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외교부에서는 대통령이 그날, 그 날짜에 한 게 주술 때문이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 퍼슨(in person) 바로 앞에 두고 저한테 물으신 겁니다. 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관보까지 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묻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기 행정부에 끈을 대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셨던 위원장님께서 한국에 찾아오신 전직 관료를 만날 면도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개인이 감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이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회의마저도 열리지 못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방해하고 계시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당장 결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이재정 위원님, 발언 삼가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의 마이크를 쥐고 ‘장관, 나와라’ 하는 순간 장관 나옵니다.

○위원장 김석기 발언 삼가 주십시오. 제가 회의를 방해한 적 없습니다.

○이재정 위원 지금이 방해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발언 삼가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장관 나오라고 한마디면 장관 나옵니다.

○위원장 김석기 발언 삼가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그러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내가 회의를 방해한 적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정 위원 증명해 보이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 위원 증명해 보이십시오. 헌법에 따라서 이 나라가 운영되지 않는 심각한 내란 상태 중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발언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위원님.

○이재정 위원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신중치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윤후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하시는 게 너무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사태는, 이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충격과 그리고 분노에 쌓여 있어요.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통위에서 보면 이것은 외란 사태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또 일본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우리한테도 연락이 오는 정도예요.

우리 외통위원회는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책임자로서 장관을 출석시켜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 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간사 간의 협의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좀 와라. 협의해 봐라’ 이렇게 지금이라도 세 분을 모아서 회의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만 맡겨 버리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늦어지면 우리 외통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탄을 받고 있어요.

어제 그제 국방위, 그 상황들을 실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그런 군인들이 나와서 그 전말을 다 설명했어요. 그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상임위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은 왜 이렇게 방기를 하고 계세요.

간사들 모아서 협의를 해서 빨리 지금, 오늘 오후라도 우리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십시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상임위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진행……

○윤후덕 위원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국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간사님 하시지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하실 게 많을 텐데요 말씀을 주시고.

우선 저는 정말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고 사실상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조차도, 현재의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차단하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묵살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은 다른 위원은 안 나와도 간사 위원이신 김건 위원은 출석을 하셨던 것인데 오늘은 간사 위원님조차도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셜리번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TV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처음 알았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무부 부장관 하는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도 여러 국무부와 미국의 정부 관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면서 ‘한국과의 그런 동맹은 튼튼하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 대통령과 특정 정부에 국한된 게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한미대사인 글드버그 대사가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한국의 헌법에 부합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미동맹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우리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켜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도대체 국민들 앞에 뭘 보여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을 출석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어떻게 국민들이 가지겠습니까?

위원장님, 당장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영배 간사님이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님과 더 진지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지금 간사 간의 합의가 없는데, 안건이 없는데 왜 출석을 해야 됩니까?

○**이재정 위원** 협의를 거쳐도 위원장님 권한인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넘기십니까?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회의 개최는 위원장님이 하실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 법에.

○**이재정 위원** 위원장 권한이에요, 위원장 권한. 위원장 권한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때까지 외통위의 회의 진행은, 개회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개회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정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내년 APEC 때 그 주최지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당당히 서시겠습니까? 오늘이 내란죄 사건 있고 난 뒤에 위원장님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오신 걸 겁니다. 오늘의 행동이 역사에 기억됩니다. 위원장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고 싶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내년 APEC 회의에서 얼굴 들고 그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윤후덕 위원** 아니, 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

○**이재정 위원** 장관 불러 주십시오. 역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평온하게 진행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시쳇말로 이것으로 매우시려는 겁니까?

○**위원장 김석기** 김준형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좀 심각한데요. 이것은 제가 신뢰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게, 국방위에서는 원인을 밝힌다면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신에서도 ‘지금 도대체 누가 이 나라의 리더냐? Who's the bo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받은 두 가지 심각한, 이것은 위원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주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만나서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APEC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 정상회담 개최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본국하고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사들이 다시는 믿을 수 없는 지금의 한국 정부와 접촉하지 말라 또는 접촉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고 본국에 제대로 보고하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외교부장관이 나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2월 3일 날 골드버그 대사가 퇴임하는 것에 대한 송별 오찬을 하다가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저녁에 계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해서 골드버그 대사가 김태호 차장하고 그리고 조태열 장관한테, 전부 다 전화를 끊고 답을 하지 않아서 본국에 어떻게 했나?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외교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고 여기 있는 대사들이 우리의 누구를 접촉해..... 그런데 외교부 대변인은 안이하게 어제 여전히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윤석열한테, 내란 수괴한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급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준형 위원님, 그 발언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수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김준형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내란 수괴의 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의사진행발언……

○이재정 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

○이재강 위원 내란 수괴가 맞지요.

○위원장 김석기 발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재정 위원 내란 수괴입니다.

○김준형 위원 지금 증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정 위원 항변을 하시고 싶으면 위원님들이 다 나와서 말씀 좀 들어 봅시다.

○위원장 김석기 흥기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흥기원 위원 지금 국방위, 행안위를 비롯해서 많은 상임위가 열려 가지고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의 국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통위는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내 문제는 누가 대행이라도 하고 또 국회가 협조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외교·안보에 관한 것은 대행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식물인간처럼 돼 있고 또 대행해야 될 총리는 이미 내란방조죄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또 방금 김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어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외교부장관 불러서 우리 외교·안보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슨 발언을 했고 또 어떻게 대응했고 또 전체적인 국무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자리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통일부장관,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 확성기 등과 관련해서 정말 무력 충돌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통일부가 또 통일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하게 지적을 할 때마다 통일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관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대북전단 보내는 것 거의 방조 수준으로 조장하고 했는데 그게 이번 내란 횡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짙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일부장관을 불러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내란 범죄의 행동대장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지시를 했고 또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 지시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통일부장관이 입장문 발표에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적할 때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정상인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불러서 이 상황의 위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외통위가 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성락 위원** 위원장님, 내우외환이라는 말을 저희가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공격했습니다.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인 기관을 공격한 것이므로 이게 내우가 아닐 수가 없고 또 그 결과로 대외적으로는 사실 우리는 외환 상태에 있습니다. 대외 관계는 완전히 붕괴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의 동맹인 미국까지도 윤 정부하고 심각한 외교교섭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처럼 분단되고 4강에 둘러싸이고 북핵을 이고 있고 미중 경쟁, 미·러 대립 시대를 헤쳐 나가야 되는 나라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엄중한 상황에 있는 나라의 외교가 완전히 기능 정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외환입니다.

윤 정부가 오랫동안 가치외교를 주장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외교에 반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의 근본적인 가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을 섰습니다. 가치외교가 어디로 갔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누가 윤 정부가 자유민주의 가치를 선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우의 문제는 국방위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환의 문제는 외통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방위도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외통위도 국민의힘에서 맡고 계십니다. 국방위에서는 그 일을 다루는데 외통위는 왜 안 다루는지, 이걸 다루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텅 빈 여당석을 보거나 또 텅 빈 국무위원회석을 보면 국민들한테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간사 합의를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훨씬 중대하고 높은 차원의 막중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간사들을 모으시고 간사가 합의에 이르러서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외교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국정이라는 게 내치와 외치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지요. 그중에 외치의 대표가 바로 외교 그리고 안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고유의 권한 중에서 함부로 쉽게 남에게 위임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긴급할 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또 관리를 해야 될 게 하나는 외교권이고 하나는 군 통수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특히 외교가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외교부장관은 뭐 하고 다니시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정부에 장관이 있다면 국회에는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국회가 당연히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우리 외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 공백을 메워야 되는지, 혼신을 다해서 함께 지금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이 중요한 책무를放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진 의원, 저도 중진입니다만 다 위원장 했거든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야 간사한테 이거를 넘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간사 아주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를 불러 모아서 이건 위급한 상황이다, 시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외교 공백이 없도록. 그리고 이걸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도울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국회의 지금 책무입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예요. 너무나 이게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진정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방위하고 비교를 하면 국방위는 사실은 어제만 해도 장성들, 별들 수십 명이 와 가지고 대기를 하면서 밤늦도록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는 정말 심각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내란 사태의 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외교위는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주요하게 지금 외교 현안과 정책들을 빨리 점검하고 국회와 머리를 맞대서 외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열지 못한다는 거는 중대한 책무의 방기입니다. 이 책임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위원장께서 이것은 정말 중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불러 모으셔야 돼요. 빨리 소집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저희 국회법에 보면 상임위를 개최할 때 여야 간사가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협의는 합의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당 간사가 위원장을 통해서 또는 여당 간사에게 여러 번에 걸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시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평시적인 상황은 아닌 것인지요. 합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관계자를 놓고 지금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 점검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후에라도 위원장께서 제대로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당 위원님 중에 김건 간사는 어제께 상설특검에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께서도 찬성을 하셨고요. 특검에는 찬성을 하는데 어떻게 상임위를 여는 것에 해태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앞뒤가 다른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마 어제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제대로 된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오전을 끝으로 해서 오후에는 위원장께서 강제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주십사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지금 각국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수반이 바뀌는 상황에서 각국의 이익에 벗어나지 않는 물밑 접촉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초외교적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자국 국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살아 있고 회복력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외통위를 통해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꼭 열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통일부장관의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 관련해서 국방부 회의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듯이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지전 가운데는 오물풍선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오물풍선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대북전단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 왔습니다. 대북전단을 뿐리는 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 내란과 관련한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전언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했던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장관은 반대했다고 하는 전언은 들립니다만 통일부장관은 그 어떤 얘기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저희는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만약에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조했다면 통일부장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국무위원으로 있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오전 내 이 사항을 정리하셔서 오후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부처 공무원을 두고 저희가 전체회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중에 특검에 찬성을 했다는 문제와 오늘 외통위 개의 문제는 본인의 소신이, 생각이 또 다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방위가 개회를 하게 된 것도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말씀하시면 나온대요.

○한정애 위원 지금 얘기를 그렇게 돌리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용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정 위원 말씀하시면 나온답니다. 대기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 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기 발언하십시오.

○조정식 위원 다 위원장 한 사람들인데, 그거를 간사한테 떠넘기면 어떡합니까? 위원장이 이 회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정 위원 지금 바로 얘기하시면 나온답니다.

○위원장 김석기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정식 위원 협의는 시켰어요?

○위원장 김석기 지금 회의 운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여야 간사 불러서 이 문제 진지하게 상의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위원장이 그러시면 안 되시지.

○위원장 김석기 간사 간에 협의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정 위원 다 좋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말 왜 못 하십니까?

○위원장 김석기 제가 판단합니다.

○이재정 위원 왜 못 하십니까?

○위원장 김석기 제가 판단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판단 안 하시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재정 위원 그러니까 방기하신 거지요. 본인 책임입니다.

○한정애 위원 김영배 간사님, 김건 간사와 몇 번이나 협의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위원님들, 제가 지금 알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이게 회의입니까?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위원장 역할을하시는 거지요.

○조정식 위원 김영배 간사님,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 최근에 같이 만났어요?

○김영배 위원 안 만났습니다.

○조정식 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불러 모으지도 않으셨잖아요?

○위원장 김석기 이용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정식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용선 위원 저도 지금 발언을 하신 민주당, 야당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쿠데타 행위로 인해서 국정이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그 실상들이 각 상임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속속 나오고 있고, 이미 어제 심야에는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요. 거기에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의자 출금 조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특히 외교안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내정만이 아니라 우리 외교안보가 공백 상태로 치닫고 있는 비상한 시국입니다. 이런 시국에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기관인 우리 국회 외통위가 빨리 소집이 돼서 이런 외교안보의 공백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답하듯이 간사 간 협의가 안 됐다라는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로

회의 소집을 사실상 방임하고 있는 것은 참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듯이 위원장의 결정이면 바로 오후라도 외교부·통일부 장관이 출석하겠다는 그런 간접 확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서의 역할도 점검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외교안보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매우 시급한,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 신속하게 상임위를 개최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강 위원 이재강 위원입니다.

윤석열 일당의 초유의 비상계엄 시도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벌인 정부의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외통위는 국방위, 정보위와 함께 정부의 남북관계 조성과 국지전 유발 등 계엄 포석을 위한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초래하며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위험한 내란 동조행위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수경 차관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을 향해서 김수경 차관은 대북전단과 접경 주민 위협의 인과관계는 북한의 주장뿐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전화로 사과하겠다며 일정을 잡아 달라는 의사를 확인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아마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내란을 정당화했던 윤석열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며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부적절하고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내란 범죄자와 다름없는 인식을 가진 인사가 정부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김수경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외통위 차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지금 외교에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외교의 컨트롤타워를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해서 장관들을 다 불러서 조치하고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외교 컨트롤타워가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장관들 다 불러서 조치해서 빨리 이 상임위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기 한 분 더 하면 돼요, 차지호 위원님 원하시는데 지금 하시겠습니까?

○차지호 위원 예.

말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이라는 게 사실 비상계엄은 어떻게든 우리 국회가 나서 가지고 비상계엄을 막았지만 그 이후에 국가의 기능들이 완전히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면추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의 모습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던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면추려고 했던 그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지요.

삼권분립은 서로의 기능들이 독립돼 있어 서로를 침해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외에 하나의 행정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어떤 특정 독재자들에 의해서 면취 버렸을 때 그 기능을 다른 기구들이 보완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외교·통일·안보 문제 지금 행정부의 기능들이 면취져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 기능은 무엇일까 다시금 의문이 됩니다. 그때 국회의 기능은 면취져 있던 소통, 외교의 문제들을 행정부가 다하지 못했을 때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외교통일위원회가 가장 대표성 있는 위원회로 이런 역할들을 맡아 줘야 되는데 왜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 그룹들…… 아니, 그쪽에 있는 외교관들이 왜 외교통일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내게 얘기하지 않고, 왜 개별 위원들한테 연락이 옵니까? 왜 제가 미국 상원의원의 연락을 직접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회의를 열고 안 열고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리는 행정부가 특히 망가져 있을 때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장관이나 이런 기능이 면취져 있을 때 오늘 위원장님의 메시지는 ‘여야 간 간사들의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충돌, 이해가 다르고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들을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외교 기능이 면취져 있을 때 국회가 어떻게 이걸 회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이 다시금 여야 문제로, 충돌의 문제 이런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 기능이 비상시에 위원장님께서 국회 기능을 살려 주셔야지요. 행정부가 면취 있을 때 국회가 그 기능을 보완하도록 해야지요. 이걸 어떻게 여야의 충돌 문제, 합의의 문제로 환원을 시켜 버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간사님 발언하시지요.

○김영배 위원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절차상 아까 위원장님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국회법을 보면요 국회법 제52조의 위원회 개회 요건에 2번이 뭐냐 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게 지금 오늘 협의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여당 간사와 합의가 안 되길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겁니다. 그랬더니 김건 간사조차도 오늘 안 나오셨는데. 2번,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우리 회의의 개회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우리 외통위 회의 개회가 필요 없다 이 입장이신지를 일단 여쭙고 싶고요.

○위원장 김석기 다 하셨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요. 두 번째로 제50조(간사)라는 법 조항을 보면 위원장이 콜위가 될 때라든지, 5항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라고 돼 있습니다. 거부뿐만 아니라 기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와 의사진행 다 거부·기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로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정당 중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간사인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보면 위원장께서 이 위원회의 개회 그리고 의사진행을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제가 대신해서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공식적으로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기록에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치하게 여야 간사 협의는 계속하겠지마는 위원장께서 국회법 제52조에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 만약에 위원장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저희들이 강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의장이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열라고 하면 또 여셔야 되거든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것은 당연히 지금 국가비상사태인 상황이고 사실상 외교권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 아닙니까? 지금 회의를 즉시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저도 그 법 조항을 봤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김영배 간사가 말씀하신 콜위, 기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협의를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기피합니까? 하세요, 협의를.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안 궁금하세요, 외교부가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위원장 김석기 협의를 해서, 이때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운영해 왔듯이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후배 국회의원인 김건 간사님께 모든 책임을 떠미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영배 간사님께서 물어본 우리 위원회가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외교라인이 막혔습니다. 위원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모든 내외빈이 방문을 취소하고 있고 심지어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당의 의원님들을 만나는 걸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시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할지 싶을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일본통으로 소문나 계

신데 일본의 자민당 의원님들 연락해 옵니까? 오죽하면 저희 당에 연락해 옵니다. 그 정도로 이 사태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런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셔서도 역할을 하셔야 될 때일 뿐만 아니라 외교 공백에 그나마 국회라도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한 이 회의마저 회피하신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특히 계엄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불충족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나름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엔 A규약, 자유권규약 가입 국가입니다. 계엄적 비상 상황에 있어서는 정부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통보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등등 가장 기본적인 1차 기본권인 자유권에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위원회 개최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역할을 방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출석하라고 하면 외교부 공무원들 여기 다 채웁니다.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위원장님이 필요성을 인정하시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김영배 간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 외통위 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간사 간 협의라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는 김건 위원님께 그 책임을 미루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재정 위원님 오늘 몇 차례 발언해 주셨고 김영배 간사님 몇 차례 발언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골고루 제가 다 들어 봤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12월 3일 날 국회는 군홧발에 짓밟혔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본청에 안 계셔서 그때의 위기감을 저희랑 똑같이 느끼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때 본회의장 로텐더홀 바로 옆에 국회의장실로 가는 거기까지 계엄군이 쳐들어왔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었던 의원님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열한 분 이상이 지금 이 자리에, 전체회의장에 앉아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시간 내내 한 얘기가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그 회의가 열리지를 않아서 ‘회의를 열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회의를 1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상계엄을 바로 일주일 전에 겪고 난 국회의 태도여야 하는가. 이게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회의조차 제대로 소집되지 않는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국민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뭘 하고 있느냐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1시간 내내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했다라고 하시겠지요. 이게 회의입니까?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회의가 이게

회의입니까? 비정상이 극치에 이르고 있는데 제발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만큼은 정상적으로 열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 제가 참, 저희 외통위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이런 입씨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저도 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 얘기를 위원장께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 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원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한테 이것 떠넘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김건 간사 나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적어도 위원장께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위원장께서 즉시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하세요. 그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 개최에 대해서 거기서 같이 세 분이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 쪽에서 김건 간사가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면 위원장께서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에 회의에 나오라고 얘기하면 나옵니다. 지금 까지 국회는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위원장께서 그렇게 다 못 하시겠다고 하면 사회권 넘기십시오, 김영배 간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장께서 거부당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기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정 간사님, 제가 김건 간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그런 적 없습니다. 말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간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취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제가 잘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외통위 전체회의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마치시기 전에 그 대답만 해 주세요.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위원장님은 회의 개최의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제가 아까 그 취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정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들은 건지.....

○위원장 김석기 제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이재정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석기 말씀하세요.

○**윤후덕 위원** 저도 상임위의 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간사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지정을 해서 오늘 2시 상임위원장으로 와서 양당 간사가 위원장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하자 그런 식의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의 의지를 좀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석기**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정 위원**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그게 떠넘기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 ○**출석 위원(13인)**

권칠승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위성락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 ○**첨가 위원(1인)**

이재명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김사우